

# 이젠 복지관서 클래식 듣고 역사 공부도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인문학 강좌 개설 '눈길'

그 어느때보다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즐겁고 풍요로운 노후를 열망하는 어르신들 또한 인문학 공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요즘이다.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광)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종로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문학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6월 1일부터 '명화 속의 음악'을 개설했다. 60세 이상 30여 어르신이 매주 월요일 명화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예술융합교육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첫 수업은 '필레'의 이삭줍기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르신들이 소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명화 속의 음악'은 스토리텔링기법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음악 신청, 명화 엽서 속 편지쓰기 등 참여 유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한다.

6월 중순에는 평균 연령 74세의 노인들로 구성된 연극단 '대학로'가 발족한다. 2011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연극단 '대학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신노인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연극단 '대학로', 오른쪽은 '명화속의 음악' 강좌 장면

### 6월부터 명화 속의 음악 개강

### 연극단 '대학로' 발족 예정

### 역사 강좌 남성 어르신 호응 커

로 시작했는데 내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남 앞에 나서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매년 무대에 올라 남들 앞에서 대사를 읊고 감정을 전달하다보니 지금은 자신감이 많이 생겨났다"며 연극단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한달간 '잃어버린 고대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익히 알고 있던 역사 지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는 이 강좌는 '잃어버린 한국고대사 연구회' 홍순주 박사가 강사로 나서, 단군조선과 홍익인간 사상 등에 대해 강의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박혜영 과장은 "어린 시절 학교 수업을 통해 배웠던 역사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신노인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연극단 '대학로', 오른쪽은 '명화속의 음악' 강좌 장면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가장 뜨겁다. 이전과 다른 역사 해석에 대해 공감하고 못하고는 참석자들의 몫이나 이러한 역사 이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어 새롭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종로노인복지관은 하반기에는 '삼국시대' 등을 주제로 하는 강의도 준비 중에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을 위한 문화, 예술, 인문 프로그램 등을 개설해 신노인 문화 창출에 앞장설 예정이다. (02)742-95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이천시장애인복지관 한국민속촌 관람

### 5월 29일 진행...성인 장애인 42명 참여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최광수)은 지난 5월 29일 장애인 회원 42명과 함께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이번 나들이는 성인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자기결정권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으며,

나들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 및 장애인 당사자 참여회의를 통해 사업을 계획했다"며 그간의 과정을 전했다.

나들이에 참여한 성인장애인들은 사물놀이공연, 줄타기, 마상무예 등의 공연 관람과 조선시대 마을 모습 관람 등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했던 장애인 회원들은 나들이를 위해 도움을 준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가족에게 "날씨만큼이나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는 소감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12명, 복지관 직원 7명이 함께했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기결정권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을 나들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이천시장애인복지관 회원들이 한국민속촌을 관람했다.

## 불교적 가족상담 지도자교육 참가자 모집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6월 19일~2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이 6월 19일~21일 2박 3일 동안 중앙승가대학에서 진행되는 '불교적 가족상담 지도자 교육'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상담 기회가 많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스님들의 가족상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기획한 이 교육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각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을 교육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불교사상에 입각한 전문적 상담도 지원한다. 한겨레상담센터 전문 강사진들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한 교육에서는 집단상담을 주제로 한 이론과 실습을 다룰 계획이다.

강사로는 강숙정 한겨레상담센터 소장 과 손영미 부소장 등이 참여하며 교육은 △자기이해 △타인이해-에고그램 체크 △자기분석을 통한 자기이해 △집단상담과

정 △집단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공동체적 배양 △공감대화 이론 및 실습 △자기와 타인의 공감적 이해 훈련 △인간관계 소우주체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조계종 교육원 연계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이수과 동등한 17시간 인증, 30점이 부여된다.

### 사찰 주지스님 등을 대상으로

### 집단상담·공감대화 등 강의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신도들과 자주 상담하는 전국 사찰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가족문제에 적용 할 수 있는 상담 이론과 실제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상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02)723-5101

정혜숙 기자

## 대학생자원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

###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올리사랑' 진행

### 접수기간은 7월 3일까지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에서는 대학생 봉사 동아리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대학생 자원봉사단 공모사업 '올리사랑'을 진행한다.

서울·경기·인천 등지의 대학교 봉사 동아리 및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올리사랑'은 지역사회 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개 대학생 봉사 단체에게는 100만원의 프로그램 운

영비가 지원되며,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인증서와 수료증 발급 및 사회복지 회계 교육을 비롯한 사회복지 현장 실천 기회가 두루 제공된다.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지원사업 '올리사랑'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 자원봉사 문화 조성하고 대학생 자원봉사단의 역량강화 및 신진 양성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내 대학생 자원봉사단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건전한 대학생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031)919-8677

정혜숙 기자

# 靈鷲叢林 通度寺 老天門徒會 문도스님들께 드리는 글

### 삼가 맑은 차 한 잔을 올립니다.

종문(宗門)의 선지식은 발심과 화두간택, 인가 및 사법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선문단련설(禪門鍛鍊說)에 나타난 선지식의 역할은 "납자의 화두를 간택해주며, 선교방편으로 대중을 분발시켜야 하며, 조사관을 타파하고 안목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총림방장에 대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통도사는 1984년 영축총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통도사가 총림으로 지정되기까지 근현대의 한국불교와 승단을 이끌어 오신 네 분의 선조사(先祖師)스님들이 계셨습니다. 구한말 큰 스승이셨던 성해대종사께서 근대 산문을 구하·경봉스님에게 열어주셨고, 그 법통을 사자상승한 율하·벽안스님이 選佛의 法杖을 세워 오늘의 한국불교 최대수행기관이 되었습니다.

영축총림 방장 원명대종사께서는 제29대 통도사 주지는 노천문도회에서 추천하라는 말씀을 금번 초부터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방장의 주지 추천을 문도회에 위임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도회장인 성파스님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문도들의 뜻을 묻지 않았고, 주지 후보자에 대한 일체의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전타전으로 몇 명 스님이 주지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5월 13일, 제28대 주지임기를 15일 정도 남기고 정변전 방장실에 세 분 스님(방장, 성파, 원산)이 모인 자리에서 성파스님은 상좌인 우학, 동진스님을 주지로 추천(방장스님이 거부하였음)하였고, 원산스님이 도문스님을 주지로 추천하였다는 말과 도문스님이 방장스님을 찾아가 주지 추천서를 써줄 것을 요구한다는 말이 총림대중에게 전해 졌습니다. 이에 노천문도들은 저간의 사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다음날 성파스님께 주지추천에 대한 강력한 이의제기와 문도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천문도회는 방장스님의 고유한 뜻을 봉대해야 한다."는 문도스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파스님은 15일 오후 4시 보광선원에서 문도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상임위원스님 16명 가운데 12명(성파, 해남, 현문, 정우, 성림, 재원, 천진, 산옹, 중선, 태봉, 상우, 오심)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성파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3일 있었던 주지추천 문제는 나의 불찰이었다. 라고 사과하고 하심탄회하게 처음부터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임위원들은 노천문도회를 소집해서 문도총으로 주지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소집공고문을 현문스님이 일독하고, 성파스님은 문도회 안건과 공고문 자구까지 함께 수정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성파, 현문, 정우스님이 비로암으로 올라가 방장스님께 상임위원회의 회의결과와 문도소집 공고문을 말씀드리고, 불교신문에 노천문도 소집공고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16일부터 성파스님의 입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문도총회에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였으나, "문도회 소집권(門長 초우스님 명의로 되어 있었음)이 문장이 아닌 문도대표회장에게 있다. 초우스님은 의식불명 상태라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며 스스로 상임위원회에서 공고문을 일독하고 수정 통과시킨 문도회를 '불법(不法)'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문, 정우, 산옹스님이 서운암에 올라가 성파스님에게 총림안정과 문도화합을 위해 회장으로서의 이해와 판단을 구하였으나 결과는 허사였습니다. 5월 26일 현문, 정우, 산옹, 오심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이 문장(초우스님을 문명 갖을 때 스님은 병석에서 일어나 앉으시며 대중들을 맞이하였고, 이를 일일이 부러우며 안부도 물으시고 총림연안도 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파스님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는 하였지만,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성파스님이 회의에 불참하면 상임부회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문스님이 문도회의를 주재하라."는 가르침과 함께 위임장에 서명까지 해주셨습니다.

佛紀 2559(2015)年 夏安居 結制日

## 靈鷲靈鷲叢林 通度寺 老天門徒會

상임부회장 玄門, 부회장 頂宇, 주지후보자 山翁, 문도회 총무 悟心 습掌

그리고 5월 27일 오후 2시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제29대 통도사 주지 후보 의 건」으로 노천문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점명부에 서명한 문도스님만 148명이었고 주지후보 추천서에 서명한 중진스님도 많이 계셨습니다. 문도회장 성파스님은 끝내 회의에 불참하였고, 회칙 차순에 의해 현문스님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경과 보고가 시작될 즈음 성파스님 상좌 2명은 "문도회 소집은 불법"이라는 발언을 한 후 회의를 빠져나가는 돌발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석대중들은 「주지 후보자의 건」이 상정되자 산옹스님을 단독후보로 추천하고, 참석대중 만장일치로 통도사 주지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에서 문도회장이기를 포기한 성파스님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화합을 이루자는 중진스님의 뜻을 존중, 제안자가 스스로 철회하고 문도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노천문도회원 스님.

5월 27일 문도회에서 주지후보자를 선출하고 방장스님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회장단과 상임위원스님들은 방장스님 주석처인 정변전(방장실)과 비로암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방장스님은 "5월 25일 오후 2시 산문을 나가신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임자와 시자들의 답변이 있었고, 30일까지도 주지 후보자를 선출했던 노천문도회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오전 11시 총무원에서는 제29대 통도사 주지 후보자 임명예스를 임명하였습니다. 산문 밖 저저거리에서 짙은 도장이라도 방장 추천서에 의한 임명이었습니다. "노천문도에게 주지후보를 추천하라" 해놓고 잠행한지 6일만의 모습이고 결과였습니다. 소식을 접한 문도대중은 참으로 황망하였으나, 제29대 통도사 주지로 부임하는 영배스님에 대해서는 총림발전을 위해 정진하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노천문도회원 스님.

영축총림 방장은 영축총림이어야 하고 통도사가 되어야하며, 살아있는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방장은 종신제가 되어야한다는 산중의 큰 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장스님과 원로스님은 스스로 어른의 자리를 포기하고 특정문도, 특정상좌를 주지로 내세우기 위해 문중간, 문도간, 좌차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총림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4년 전에도, 4년 후에도 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장은 고유직무를 포기하고 오로지 주지 추천권만을 행사하기 위해 위선과 거짓, 잠행만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총림대중은 분노하고 있으며, 어른스님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수행납자로서 가슴 저미는 통한의 슬픔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먼저가신 어른스님들의 보살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나마 성장할 수 있었는데, 후학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이 되어주고 가르칠 것인지, 부끄럽고 창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금번 노천문도대중은 생사의 수행결사체인 영축총림 통도사가 부종수교의 큰 뜻과 총림설치의 근본이념을 다하지 못하고 뉘를 드린대 대하여 제방스님들께 참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천문도는 오늘을 시작으로 선조스님들의 유지유훈을 수행간간으로 출가본연의 자리에서 영축총림 위상회복을 위해 가일층 정진할 것이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는 대중공사를 통해 총림을 바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방 수행처에서 영축산문을 일으켜 세우고자 노천문도총회에 참석하여주셨던 문도스님들의 승고한 뜻에 거듭 존중과 사의를 드리며,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